
 금융감독원		보 도 자 료		 한국은행	
보도	2024.3.27.(수) 15:00		배포	2024.3.27.(수)	
담당 부서	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ESG시스템리스크분석팀		책임자	국 장	이 진 (02-3145-8170)
			담당자	팀 장	김정일 (02-3145-8190)
	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지속가능성장연구팀		책임자	실 장	나승호 (02-750-6801)
			담당자	팀 장	이대건 (02-750-6868)
금융감독원 · 한국은행, 국내 금융권과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추진					

1. 개 요

-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15개 금융회사*와 공동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

* 은행(KB, 신한, 하나, 우리, NH, 대구, 부산), 생보(삼성, 교보, 한화, 신한), 손보(삼성, 현대, KB, 코리안리)

- 금번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기후리스크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노하우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기후 리스크 관리·감독 경험이 결합되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

*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협업 사례
(프랑스) 금융감독청(ACPR)과 중앙은행(BdF) 공동 파일럿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('21)
(일 본) 금융감독청(JFSA)과 중앙은행(BOJ) 공동 파일럿 기후 시나리오 분석 실시('22)

-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실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양 기관의 결과와 비교·분석하여 신뢰성있는 결과를 도출*할 예정

* 유럽중앙은행은 개별은행과 공동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('22)

- 참여기관은 상반기 중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, 하반기 중 동 시나리오 하에서의 금융회사 영향을 측정할 계획

< 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개요 >

- 주관 :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 공동
- 참여기관 : 금융감독원, 한국은행, 15개 금융사
- 실시기간 : '24.3월~12월 (첫 회의 일시/장소 : '24.3.27.(수), 오후 3시 / 금융감독원)
※ 첫회의 내용 : 「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」 실시방안

[참고]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개념 (상세내용 [붙임] 참조)

-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"기후변화 대응 비용(저탄소 전환 및 자연재해 대응) 발생 → 거시경제 여건 악화 · 기업 수익성 악화 → 금융회사 여신 및 투자 손실" 과정을 계량화한 기후리스크의 측정 수단

2.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방안 및 기대효과





-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금융회사와 함께 기후 시나리오 개발, 시나리오별 금융회사 영향 측정, 측정결과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
 -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국내 탄소중립 정책* 및 기후변화 전망 등을 반영한 기후 시나리오**를 개발하여 금융회사에 배포
 - *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부문별 중장기 감축대책, 녹색기술 혁신 등
 - ** 기후 시나리오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, 강수량 변화 및 이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액 등 기후변수와 GDP 성장률 영향 등 경제·금융변수를 추정해낸 것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의 기준 정보로 활용
 - 금융회사는 시나리오별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대출 및 투자 등의 손실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
 -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도 테스트를 실시한 후, 그 결과를 금융회사의 실시 결과와 비교함으로써,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
 - 금융회사는 테스트 결과를 녹색 익스포저 비중 확대 등 저탄소 전환계획 수립 및 이행의 지표로 활용

3.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정책 등을 마련할 계획
 - 금융회사의 녹색 전환을 유도함으로써,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 전환자금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, 「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」를 통한 기후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
- 한편,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기후리스크 관리 관련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, 동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국제 컨퍼런스에 발표하는 등 기후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

- (금융리스크) 기후 리스크는 크게 전환 리스크(Transition Risk) 및 물리적 리스크(Physical Risk)로 구분 가능하며,
- 이는 금융회사의 신용·시장·운영·보험 리스크 등 다양한 금융리스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

[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예시]

리스크 유형	물리적 리스크 요인(예시)	전환 리스크 요인(예시)
신용 리스크 	• 이상기후로 인한 침수화재 등 발생으로 담보자산의 가치 하락 등	• 고탄소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인한 부도율(PD)·손실률(LGD) 상승 등
시장 리스크 	• 잦은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국가 경제기반 약화로 국내주식 가격 하락 등	• 화석연료 생산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가치 급락 등
운영 리스크 	• 극심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본지점 업무 중단 등 영업연속성에 영향	• 금융회사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평판 훼손 등
보험 리스크 	• 이상기후로 인한 물적피해 증가로 보험금이 준비금을 초과 등	• 고탄소 기업에 대한 주식 및 채권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격 조정 등

- (개요)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을 시나리오로 설정하고, 동 시나리오에 따른 금융산업의 영향을 분석
-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저탄소 전환경로와 실물경제 파급영향을 포함한 국내 맞춤형 기후 시나리오 생성, 금융회사의 리스크 부담 정도 및 손실 측정 단계로 수행

<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개요 >

